막장 드라마 지고 청정 드라마 뜬다

종합병원 의료진, 환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로 시청자에게 따스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2'.(왼쪽 사진) SBS '펜트하우스3' 등 일부 '막장' 드라마의 억지스런 전개에 대한 시청자 피로감을 달래주고 있다. 사진제공 | tvN·SBS

'펜트3'에 지친 시청자들, '슬의생2'로 힐링?

〈펜트하우스3〉 〈슬기로운 의사생활2〉

슬의생2 첫방송 시청률 10% 돌파
라켓소년단도 5% 대 시청률 꾸준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 잡은 반면
펜트3 등 황당전개로 상승세 꺾여

'마라 맛 드라마'가 지고, '청정 드라마'가 뜬다.

최근 표현 수위 높은 '막장' 콘셉트 드라마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힐링'의 가치를 내건 작품이 이름값을 올리고 있다. 자극적인 묘사와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시청자의 호기심을 끌어내며 시청률까지 높이고 있다. 반면, 막장 콘셉트를 내세운 드라마들은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내어보이면서 "지쳤다"는 시청자 혹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슬의생2'·'라켓소년단'…힐링의 정석

'청정 드라마'의 대표주자로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2'(슬의생2)와 현재 방영 중인 SBS '라켓소년단'이 꼽힌다.

'슬의생2'는 조정석·유연석·정경호·전미도·김대명 등 서울대 의대 99학번 동기생들이 함께 근무하는 종합병원을 무대 삼아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아낸다. 주인공들의 엇갈린 러브라인 못지않게 환자와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비중 있게 다룬다. 연출자 신원호 PD는 "극성 강한 드라마들이 많아지면서 시청자 사이에 피로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상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라켓소년단'은 전남 해남의 중학교 배드민턴부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탕준상·손상연·최현욱·김강훈·김민기 등 부원들이 선의의 경쟁과 우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이 시청 포인트다. 아픈 이웃집 아이를 위해 동네 어른들이 모두 뛰어나와 도와주는 정겨운 시골 풍경이 푸근함을 더한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슬의생2'는 1회 만에 시청률 10%(이하 닐슨코리아)를 넘어섰고, '라켓소년단'도 꾸준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오후 넷플릭스의 '톱 10 콘텐츠'에 각각 1위와 7위에 랭크되는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펜트3' '결사곡2' 등…황당 전개 비판

지난해부터 '막장' 열풍을 주도해온 SBS '펜트하우스3'와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2'(결사곡2) 등은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동안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 비판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펜트하우스3'는 이지아와 유진 등 주인공들이 배신과 결탁을 반복하는가 하면, 죽은 로건 리(박은석)와 똑 닮은 형 알렉스가 등장해 한층 복잡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 '결사곡2'에도 시즌1에서 사망한 노주현이 귀신으로 재등장했다. 이처럼 황당한 설정 탓에 그동안 빠르고 긴장감 넘치게 이야기를 전개해온 드라마의 매력이 반감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세 자매의 이혼과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도 마찬가지다. 첫째 홍은희와 남편 최대철 사이에 끼어든 내연녀 하재숙이 갑자기 사망하는 설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불륜과 출생의 비밀 등 막장 요소들도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30%대에서 19일 28.6%로 다소 하락한 시청률 흐름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VR·AR 콘텐츠까지…영화제의 색다른 시도

칸영화제 내달 6일·부천 8일 개막

감염병 시대, 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영화 축제가 외연을 넓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오프라인으로만 개최되어온 영화제가 온라인까지 새로운 무대 삼고 있다. 또 다채로운 영화를 세계 최초로 선보여온 영화 축제는 주최지 뿐 아니라 영화제 기간에 해외에서도 공식 상영하는 색다른 방식을 도입했다.

7월8일부터 18일까지 펼쳐지는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지역 2개 극장과 함께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를 통해서도 초청작을 공식 상영한다. 47개국 258편의 장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는 나홍진 감독이 제작한 태국영화 '랑종'을 비롯해 97편의 영화를 세계 최초로 상영하면서 OTT를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택했다.

여기에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아우르는 XR(확장현실) 콘텐츠도 선보인다.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한다는 의지이다.

이에 앞서 7월6일 개막하는 제74회 칸국제영화제는 축제 기간 중 문을 여는 칸 필름마켓을 통해 주요 상영작을 해외에서도 하루 시차를 두고 소개한다. 1946년 영화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2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칸을 찾을 수 없는 해외 영화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또 하나의 축제이다.

21일 세계적인 영화전문지 스크린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올해 칸 필름마켓은 한국의 서울을 비롯해 호주 멜버른, 멕시코 멕시코시티,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 5개 도시에서 일부 공식 초청작을 상영한다. 영화 배급 관계자·필름 바이어·각종 영화제 및 플랫폼 프로그래머 등을 위한 것으로 7월8일부터 초청작 가운데 경쟁부문 상영작을 포함한 20편을 소개한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상영된다. 윤여수 기자

사랑의 불시착 다음은 빈센조 내달 日 도쿄서 드라마전시회

송중기 향한 현지 팬들 관심 눈길

손예진과 현빈이 주연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아온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현지 전시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또 다른 한류드라마도 엇비슷한 무대를 선보인다. 최근 막을 내린 tvN '빈센조'를 비롯해 '스타트업' '김비서가 왜 그럴까'이다. 한류드라마가 관련 콘텐츠 전시회라는 또 다른 무대로 영역을 넓히는 셈이다.

21일 일본 오리콘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빈센조'·'스타트업'·'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콘텐츠 전시회가 7월9일 일본 도쿄 시부야의 문화복합시설 히카리에에서 막을 올린다. 8월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모은 한국드라마 관련 콘텐츠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으는 무대여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세 편의 드라마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다양한 콘텐츠가 현지 관람객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현지 매체들은 송중기가 주연한 '빈센조' 전시가 펼쳐진다는 점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빈센조'는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일본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4월 말부터 공개돼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플릭스패트롤 자료)를 차지하며 인기를 모았다. 21일 현재에도 5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현지 시청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송중기는 최근 넷플릭스 재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영광이다"면서 "한국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해하며 유쾌하게 봐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국드라마의 일본 전시회는 현지 시청자의 시선 모으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관련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 도쿄를 비롯해 4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 중인 가운데 적지 않은 현지 시청자가 전시장을 찾아 인기를 입증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